

# 한미 외교 “북핵 시급한 중대 문제… 한미동맹은 핵심축”

### “대북정책 관련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시행 중요…긴밀 공조·협력”



한국과 미국은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핵 문제가 시급한 중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의를 외교부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정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했다. 80분 확대회담과 25분 단독회담으로 이날 회담은 총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오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 만들 것”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

일시: 2021. 3. 18.(목) 14:30 장소: 경기도청 상황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혼자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이선규 민주노동총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종진 (썬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배달업 배달특급 운영사인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보는 시 간도 가졌다.

최근수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숲

한국의 서가장 아름다운 숲을 즐기자  
조지훈과 추사대를

## 길

천혜의 자연경관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물

한국의 아름다운 물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빛

한국의 아름다운 빛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연

한국의 아름다운 연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맛

한국의 아름다운 맛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심

한국의 아름다운 심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매일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천벽공원, 죽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자연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송 지사 "희망의 봄, 함께 맞이하자" 대도민 호소

##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동참 절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야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비롯해 지역의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1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도내 확진자 수가 41명에 달하며 수도권과 경남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도내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송 지사는 "작년 한 해 우리 도의 확진자 수가 845명이었지만 새해 들어 이미 470명을 돌파했다"며 최근의 빠른 확산세에 대해 경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PC방, 한방 병원, 회사와 마을, 경찰서와 대학교 등 감염원이 다양해지고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요양원발 감염 확산 위기가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송 지사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봄철 이동량 증가로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과 경제가 모두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극한의 피로감을 겪는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공동 체를 위해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도민을 믿고 이를 전제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 완화

와 지속 여부는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의 노고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도민들도 한 단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우리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선별검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백신접종의 시작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등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방역수칙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도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는 합동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초심의



자세로 코로나19 정정전복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

부했다. 송 지사는 정부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계획 발표에 따른 시·군별 철저한 계획수립 불철 축제제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개최 시군 단체장이 직접 관내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재확인 및 점검 독려 등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전국적으로 4차 유행 위험성이 높아지고 도내 확진자도 이틀째 증가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취약자, 타지역방문자 등은 누구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감염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늦은 밤에 발생하더라도 인접 시군에 확진자 경로와 접촉자 등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선 시군의 건의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즉각적인 상황 공유가 이뤄지고 도민에게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세밀한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 김경호 도의원, 북면119지역대 신축과 119구급차량 전진 배치 요구

### 소방서 현안 논의 및 자율소방대 산불 진압 공로 표창 수상 축하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가평소방서 현안 업무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방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산불화재를 초기 진압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은 북면자율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소방서 2층 서장 집무실에서 개최된 정책설명회는 김경호의원, 구본현 가평소방서 서장 등 5명이 참석해 주요 추진 업무와 당면 현안 보고 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소방서는 산불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큰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은 북면 자율소방대원 4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지난해 12월 30일 북면 백둔리 지역 산불이 나자 북면 자율소방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초기 진압에 성공한 사례로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방서가 공로를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날 표창장은 임도형 소방부대장, 임주백 정비팀장, 이신한 정비부팀장, 김경희 총무가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책회의에 앞서 가평소방서를 방문해 북면 119지역대 신축 북면 등 관내 거리가 먼 지역 119구급차량 전진배치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가평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북면 119지역대는 많이 남아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넓은 관리 면적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에 시간이 걸려 사람이 많아지는 행사철에는 북면에 119구급차량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표창을 받은 자율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귀감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근수기자

## 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원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회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승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일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회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심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어업인들이다"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어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인문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읽기문화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서울기술연구원, 10년 후 도시문제 대비 '서울미래보고서 2030' 발간

### 시민들이 꼽은 최우선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도시'...미래 주요기술은 그린에너지지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과 서울시민 1,000명이 바라본 10년 후 서울의 도시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에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을 10년 후 미래의 도시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도시'였고 그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도시'를 꼽았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해 서울시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으로는 '대기·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 마련'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 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섯 가지가 선정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31일 출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10년 후 미래 도시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제와 미래연구 내용을 담았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첫 미래연구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포럼도 열린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도시 인프라의 미래 기술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은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비욘드알앤아이 김홍범 부대표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서울시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패널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약 13개월의 연구기간을 투입해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기술연구원 비롯한 민간산학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의견 수렴과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초청강연 2회, 총괄위원회 4회, 기획위원회 43회, 자료조사 128종 수행 등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해 KAIST 김성희 교수를 비롯해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을 비롯한 5개 기술분야 전문가가 45명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주요 도시문제 이슈 및 현황 서울미래 시나리오 5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10년간의 기술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 등 3가지

대표 질문을 설정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또, 6대 분야의 '미래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서울의 미래 2030을 움직이는 '15개의 핵심 동인'을 선정해 서울의 미래 영향요소를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도시 문제는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도출된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5개 중점 연구 분야를 구분해 각 분야 연구원들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자'만의 관점이 아닌 '서울시민'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데이터와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문가의 미래예측을 더해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기술전략이 이번 보고서 안에 포함됐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 공감수를 확보하면 토론이 열리는 온라인 정책 제안의 장이다.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5일간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삶과 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을 수행했다.

서울시민은 향후 10년 미래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첨단기술에 기반하는 '첨단도시 서울'에 대한 미래인식이 비교적 높게 도출됐다.

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사회 유망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워터그리드 지능형 교통체계/스마트홈/사물인터넷 순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기술은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완전자율주행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국가'나 '세계' 대상이 아닌 '도시' 단위의 미래 예측을 수행, 미래 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응을 위해 기술전략을 도출했다는 점이 기존 미래예측보고서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10년 후는 시의 정책목표가 수립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하고 미래 분석, 전략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2040년, 50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 연구보고서 최종 출판일은 오는 31일로 총괄 보고서 1권과 각 연구분야별 5권으로 구성되어 총 6권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4월부터 서울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내에는 도서형태로 발간해 대시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김정환 박사는 "미래는 예측에 그치지 않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는 서울의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와 시민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찾는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말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미래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시민 관점의 개별 도시 차원 연구는 미흡해 서울시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며 "서울미래보고서2030은 서울의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자 기술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성북구,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문화예술창업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 모델 점검, 세무회계 역량 강화, VC대상 IR 피칭 지원

성북구가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청년창업 Scale-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5년차 문화예술분야 초기 창업자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청년창업 Scale-up 프로그램'은 공동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점검, 세무회계 역량강화 교육과 VC대상 IR 피칭 및 1:1 컨설팅으로 구성되며 이후 팔로우업 코칭과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혁신기업, 소셜벤처 전문창업교육기관인 '언더독스'와 함께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해 안정적인 수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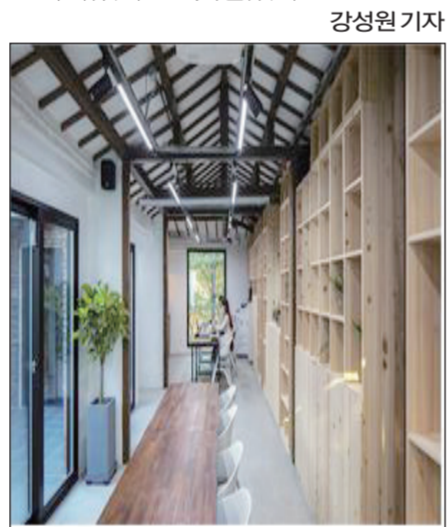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 10월 성북구는 삼양로의 기존 맥양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공간 '길:이음'을 조성하고 임시로 개관했다.

이 공간은 삼양로 일대 소상공인, 청년,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청년창업거리 및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향후 청년공간 '길:이음'이 청년창업 및 지역문화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창업패키지 이외에도 인사·노무, 세무·회계, 마케팅, 유통, 특허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길:이음 멘토단을 운영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상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업프로그램 신청과 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대관 정보는 청년공간 길:이음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속에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원 기자

## 함께 나눠요 공유축진사업 최대 5백만원 지원

### 물건, 공간, 재능 등 공유축진 분야, 사업별 1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동작구가 오는 30일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간·물품·재능 등을 이웃과 나누는 공유축진을 확산하고자 '동작구 공유축진 공모사업'을 추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분야별로 공유부역 등 장소 중심의 공간공유, 육아용품과 교복 등의 물건공유, 지식과 경험 등을 나누는 재능공유, 그 외 공유를 촉진하는 교육 등의 기타 공유로 4개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동작구민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익인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등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당 1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이며 사업의 공익성 및 주민참여도 등을 검토해 1차 동작구 공유축진위원회 심의와 2차

동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4개 사업을 4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된 단체는 4월 중 구와 협약을 체결 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계획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 30일까지 동작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공유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서대문구, 신촌 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멘토링 추진

서대문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신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신촌 소상공인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신촌동, 창천동, 대현동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로 이들을 위한 경영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핵심 이슈 선정 멘토 매칭 맞춤형 멘토링 중장기적 솔루션 제안 등이 매 장별로 이뤄진다.

멘토링 받기를 희망하는 신촌 지역 소상공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4월 9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전형과 필요시 2차 인터뷰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멘토링은 스타트업 전문 멘토링 기업인 쉼터피치가 주관하며 '진단 멘토링' 1회,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2회 등 업체별로 3회씩 멘토링이 실시된다.

각 매장마다 다른 멘토들이 매칭돼 상담과 밀착 분석, 해법 제시에 나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일괄 교육이 아닌 매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멘토링이라 성과가 더욱 기대되며 다양한 인기 매장이 늘 수 있도록 '신촌 소상공인 멘토링'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 온라인 마케터 교육받고 취업성공...동작구, 교육생 모집

코로나19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0 방송통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비는 7조 2,7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9.4% 증가한 7조 9,569억 원으로 전망한다.

그 중 모바일 광고는 지난해 5조 5,244억 원으로 전년대비 18.8% 성장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해 기업 인턴 근무를 통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는 실무중심의 온라인 마케팅 노하

우를, 청년에게는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앞서 지난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기획·진로설계지원·교육환경 관리 등을 담당할 총괄매니저 1명을 공모해 선발했다.

교육대상은 소비 트렌드 파악이 수월하고 SNS·인터넷 쇼핑 등에 익숙한 만 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또는 소재 대학 졸업생 등 3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직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5월부터 7월까지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또는 동작구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페이스북, 네이버 등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기획 마케팅 홍보영상 제

작·실습 마케팅 전략 기획, 포트폴리오 제작 등 구인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료교육생에 한해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구인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미취업자·중도 교육포기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노원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한다.

## 구 공공디자인 정책, 4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까지의 경관 위주의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다.

또한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조화도 고려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원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후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는 생활안전형 디자인 적용 확대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청결과 안전이 취약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노후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 보행로를 개선한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지역 범죄 발생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 시설물은 노후 담장개선,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안전울타리 등 방범 안전 인프라에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심리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빈번한 고령자 지원에도 힘쓴다.

실의 활동 유도를 위해 공원 내 실버카페 조성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 등 고령자 커뮤니티 환경 조성이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 우수 힐링공간으로의 접근성 극대화다.

우선 중랑천과 당현천의 문화 친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당현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꽃폭포 등 조경과 전체 구간에 야간 조명을 가미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 교차로와 수락산 입구, 상계역에서 당현천 주변과 불암산 입구까지 등보행시설물도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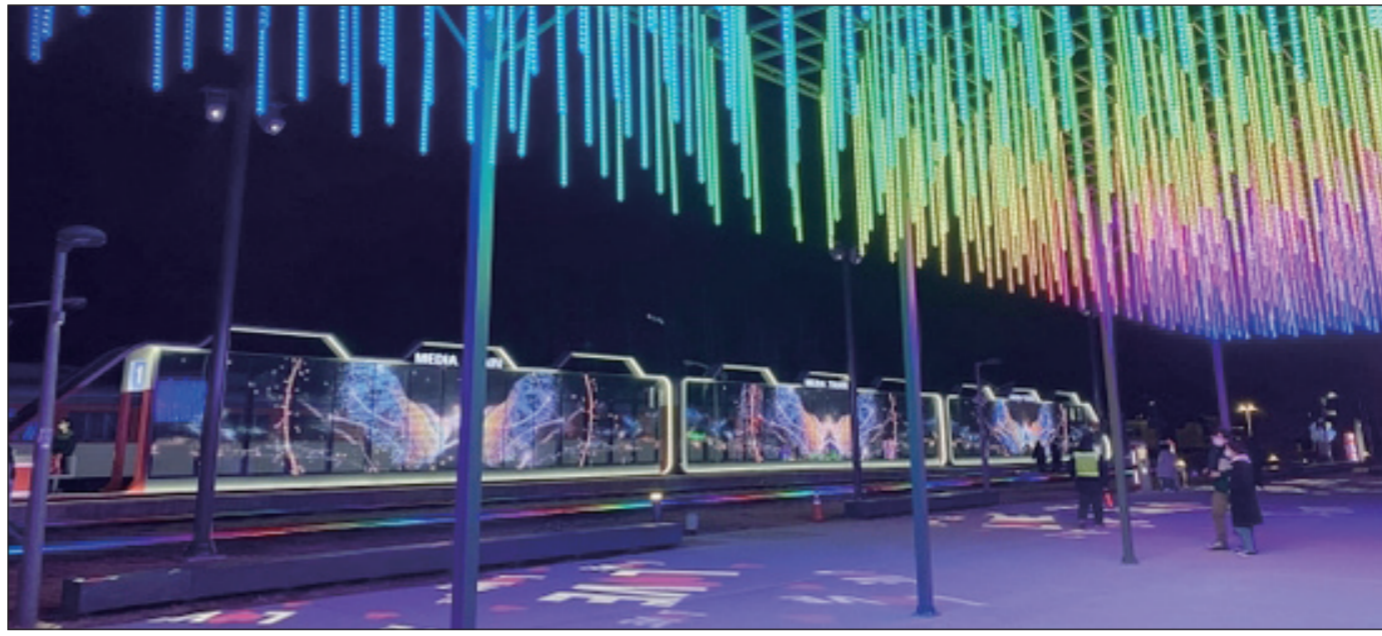
걷는 재미가 있는 노원 상징가로도 조성한다.

동일로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순복음 교회까지 약 1km 구간이 대상으로 쉬어가면서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 공간이다.

기존 유휴 공간 효율적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하부 유휴 공간이다.

현재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 내 12개소 중 당고개역 하



부 등 3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의 재생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휴게공간과 문화교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조깅이나 워킹을 위한 트랙,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지하철 교각 등 도시 구조물의 갤러리화다.

기동과 배전함 등 주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실시하고 예술 작품화한다.

기동에 문자 패턴을 레이저로 커팅한 조명, 구조물 천정에 푸른빛 우주와 별자리 투사로 환상적인 예술공간 연출 등 밝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등 6개 권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지역의 노후도, 전체 주택 중 83%에 달하는 아파트 비율, 수락산과 불암산 등 풍부한 녹지, 중랑천과 당현천 수변 공간, 노원 중심가 문화 공간 등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반영한다.

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6월 한달간 연령과 지역을 구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이 시급한 도시 디자인 정책 과제와 향후 도시 발전 방향 등 15개 문항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병행했다.

또한 서울의 타 자치구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에도 연관 된다"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노원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똑똑한 스마트 배출·수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동작구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스마트 배출·수거 통합관리 시스템 '손쉽게 버리고' 웹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손 쉽게 버리고' 웹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배출원 중심의 청소행정 시스템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오류사항을 보완해 4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구축한 '손 쉽게 버리고' 웹은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 신고 스마트 배출장소 알리미 수거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대형업체 DB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다.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시스템은 배출자가 QR코드 접속 후 배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했고 대형업체는 알림 확인 후 폐기물을 수거해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배출장소 알리미는 가

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쓰레기 발견 시 수거업체에 등록하면 동작 365기동대가 알림 확인 즉시 실시간 "이어가게"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어가게 선정사업은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노포를 발굴·지원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해 중구·동구에 이어 올해에는 부평·계양 일대에 "이어가게"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미스김테일러', '버팀라인' 등 중구·동구일대의 이어가게 10곳을 선정, 시민들에게 알리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어가게"라는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한 이름이다.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그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오래된 가게를 뜻하는 인천만의 고유 명칭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신청된 가게를 대상으로 역사성, 희소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어가게로 선정된 가게는 인증현

최만식기자

## 인천 부평구·계양구의 "이어가게"를 찾습니다

### 작년 중구·동구에 이어 부평·계양 일대 두 번째 "이어가게" 발굴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 인천시, '야생화 된 유기견 포획 지원' 온라인 찬반토론

###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 네 번째 주제로 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 인천시, '야생화 된 유기견 포획 지원' 온라인 찬반토론

###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 네 번째 주제로 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두 번째 "이어가게"를 발굴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김종남기자



# 은평구, 온라인 주민 공론장 개최

## 2022년 참여예산 주민 제안 및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론장 운영

은평구는 2022년 참여예산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주민 공론장을 개최한다.

이번 주민 공론장은 2022년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제안 및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간의 전화자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론 주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민교육 활성화 자원순환 은평 만들기 정신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등 11개 은평구 정책과제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 중 관심 있는 정책과제와 일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공론장 일정 중 자신이 관심있는 정책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공론장을 통해 구체화된 참여예산 정책과제 제안들은 공론장 이후 사업부서 검토 절차 등을 거쳐 8월로 예정된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 2022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 공론장은 주민들이 참여예산 주민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 구체화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김해시 실업팀 및 주요 학교운동부 방역 실태 현장 점검

#### 스포츠 방역 사각지대 원천 봉쇄

합숙생활을 하는 직장·학교 운동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해시가 스포츠 방역 사각지대 원천 봉쇄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관내 실업팀과 주요 종목의 학교운동부 20개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합숙소와 훈련장을 현장 점검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유동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해시에는 현재 7개의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종목의 학교운동부는 대학부 5개 팀, 고등부 3개 팀, 중등부 2개 팀, 그 외 클럽형 3개 팀으로 총 13개 팀이 각 지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운동부 및 클럽 중 숙소 생활을 하는 곳은 8개 팀으로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신분 특성 상 훈련 외 외부활동 금지, 자제 자가격리 등의 수칙을 이행할 수 없는 실정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지도·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상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의 기본방역수칙과 숙소 1실당 최소인원 배정, 외부인 출입 제한,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 금지 등 합숙소 및 훈련장 내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밖에도 대회나 전지훈련 등의 사유로 인한 타 시도 원정 시, 필수 활동 외 일체 외부활동을 금지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복귀 시에는 2주간 선수단 전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시 운동선수들이 평소 훈련에 집중하면서도 생활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실업팀과 주요 학교운동부 방역실태 점검을 오는 3월 24일까지 지속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요청 시 표본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남경영기자



### 익산시,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증축

등의 불법 건축 행위, 건물과 건물을 통로로 연결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건축법과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처분 사전 통지한다.

통지 후에는 1·2차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벌칙조항에 따라 벌령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단전, 단수 등 강력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의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할 것

### 비산면지 다량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억제시설 운영기준 적정여부 등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도내 비산면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 비산면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불철 황사 시즌 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면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억제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 신고 여부, 비산면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기타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 대형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고의적 위법행위 시설 중점

을 당부드린다”며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분별한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불

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임실군,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 산불·미세먼지 차단,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실군이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산림인접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관리 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산불의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켜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소각 산불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약품소 지도점검 실시

장수군이 군민 건강보호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보건약집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이 구성돼 관내에 있는 의원, 치과, 한의원 등 17곳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보관 준수사항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이행여부 한약규격품 판매여부 및 원산지 표시여부 품질부적합 한약규격품 유통여부 안전상비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

장 지도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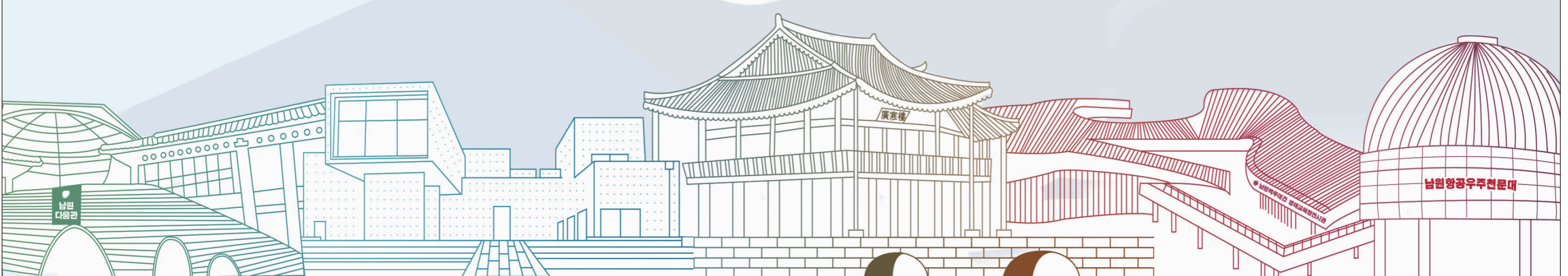
이번 점검 외에도 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인과 종사자, 의약품취급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안전상비약품 판매처, 의약품 표시기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광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설기관, 의료기기 판매 및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 도심 내 '길고양이 로드킬' 예방 위해 홍보 스티커 1,500장 제작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도심 내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양이 로드킬 예방 홍보 스티커' 1,500장을 제작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한다.

이 스티커는 길고양이 로드킬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물로 민간 동물보호단체 '좋은냥이좋은사람들'

의 제안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많은 길고양이들이 도심 내 좁은 골목이나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실제로 도내 길고양이 로드킬은 2018년 11,953건, 2019년 12,776건, 2020년 13,2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도심 내 로드킬은 수원, 시흥, 안산, 오산 등 도심 내 차도와 골목길, 변화가에서 길고양이 로드

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킬은 동물뿐만 아니라 자칫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골목이나 야간 주행 시 주행속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티커는 자동차 후면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운전 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조심해 서행하자는 등의 내용과 그림을 넣어 도민들이 쉽게 확인

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를 시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 운전자 대상 동물 로드킬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 등 동물 로드킬 예방을 위한 족자 형태의 안

전표지물 50개를 제작, 수원시 일대 곳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 스티커와 안전표지물 등은 도심 내 사람과 동물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에서 제안하는 창의적인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광명시, 국제로타리 3690지구와 치매예방 지원사업 추진

## 최대호 시장, 4차 산업기술 시민안전분야에 적용하겠다.



안양시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 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IoT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SK텔레콤이 함께한다.

재난안전망은 재난발생 시 각 기관들이 긴급하게 소통하며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전용선로로 이달부터 전국망으로 구축돼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망을 활용해 IoT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안양시가 국내 첫 사례다.

안양시와 SKT는 이번 서비스 개시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확대를 위한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양시의 스마트시티 기반 IoT 서비스는 크게 시민 안전 시민 건강 재난사전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제공된다.

우선, 안양시와 SKT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진동 감지는 물론, 폭발물 감지에 재난안전망 기반의 IoT를 적용시켰다.

또한, IoT 서비스를 미세먼지와 가스 감지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 누수탐지와 스마트 신호등 제어, 가로등 제어 등의 분야에도 재난안전망을 활용해 IoT서비스들이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 같은 IoT서비스로 재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IoT 서비스를 시작으로 SKT는 자사가 보유 중인 다양한 ICT 기술로 안양시의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솔루션 발굴 및 구축에 힘을 보태게 된다.

또 안양시와 SKT는 타 지자체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해 재난안전망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내난안전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시민생활 곳곳에 적용,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건설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심진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안양시의 재난안전통신망 선도적 활용에 감사하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안전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권 SKT Infra Biz.본부장은 "SKT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건강·편의에 도움이 될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ESG 경영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G와 AI 등 SKT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로 안양시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종균 기자

### 치매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광명시'

광명시는 지난 17일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제로타리 3690 지구 광명지역 3개 로타리클럽과 함께 '광명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나눔 로타리 건강 울타리'사업 열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임오경 국회의원, 국제로타리 3690지구 임규열 총재, 남계희 광명지역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광명지역 3개 로타리클럽, 광명시립 소하노인

종합복지관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했으며 국제로타리 3690지구 광명지역 3개 로타리클럽은 광명시 노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업비 5330만원을 광명시 위탁 기관인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했다.

'나눔 로타리 건강 울타리'는 VR을 활용한 인지기능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치매예방 아웃리치 등으로 운영되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이

를 통해 노인이 가진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VR체험활동을 기반으로 노인의 치매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치매발병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치매 조기발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순희, 원종균 기자

## 안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 실시

안산시는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과 진료에 필요한 안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심리검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진단이 조현병과 분열 및 망상장애 뿐 아니라 재발성우울장애 등 여러 유형까지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정재훈 단원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정신의학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 기자

**새로운 공기** **공정한 세상** **행복한 삶**

## 2021 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THE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종위소득 80% 이하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소득제한 없음
  - 2021년 정신건강 관련 진단 받은 자
  - 심리검사 지원 가능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조현병, 조울증, 스트레스장애, ADHD, 공황장애 등으로 진단 받은 자
- 코로나 19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소득제한 없음
  - 우울증, 스트레스, PTSD 등으로 진단 받은 자
- 청년 마인드케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소득제한 없음
  - 만 19세 ~ 만 34세 (1986년생 ~ 2002년생)
  - F20 ~ 29, F30 ~ 39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심리검사 지원 가능

\* 2021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소급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합니다.

**대 상** 정신과 진료 받고 있는 **안산시민 누구나**

**문의전화** 031-411-7573

ascmc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www.ansamind.or.kr](http://www.ansamind.or.kr)



## 양주시, 우리동네 리딩 샵 운영

양주시는 책 읽는 시민문화 정책을 위해 '2021 양주 올해의 책'을 활용한 '양주 우리동네 리딩 샵'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민독서운동으로 그동안 도서관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이 자신이 자주 찾는 생활 속 공간에서 책을 쉽게 접하면서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에서 펼치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양주 우리동네 리딩 샵'은 미용실, 카페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생활밀집 공간에 양주 올해의 책을 비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리딩 샵에 참여하는 상점은 '양주 우리동네 리딩 샵' 현판을 받게 된다.

시민이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책은 성인도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와 청소년도서 '체리 새우:비밀글이다', 아동도서 '답을 넘은 아이', 아동도서 '슈퍼 토끼' 등 총 4권이다.

우리동네 리딩 샵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내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양주 우리동네 리

2021 양주시

## READING SHOP 우리동네 리딩 샵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기간** 2021. 4. ~ 12.  
**신청기간** 2021. 3. 15. ~ 6. 30. (선착순 20점 모집)  
**대상** 양주시 내 영업중인 상점

**신청방법**: 양주동네 리딩 샵 신청서 → 양주시청 행정교육진흥원에서 인준 받은 뒤 도서 배부 → 상점에 도서 비치 → '우리동네 리딩 샵' 운영

**2021 양주 올해의 책**

- \*수란 도희, **체리 새우: 비밀글이다**, 아동도서 : (이레비)
- \*김민서, **답을 넘은 아이**, 아동도서 : (이레비)
- \*정재훈,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성인도서 : (이레비)
- \*정재훈, **체리 새우: 비밀글이다**, 아동도서 : (이레비)

신청기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밀집 공간으로 여겨지는 시민이 가장 우선 운영(미용실, 카페, 안경점 등) **문의: 031-8082-7437 / 홈페이지: www.rtsb.go.kr**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딩 샵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우리동네 리딩 샵을 통한 시민독서운동이 책

읽는 도시 양주 만들기 민·관 협력 사업의 바람직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이뤄낸다

## 수원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해 추진

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치법구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시

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발굴 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15개 기업체 등을 상담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해 '기초자치단체 역할조사관 채용 가능',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개



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수상 공직자 규제개혁 적극행정 실천 다짐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규제개혁 프로 그래프를 추진해 규제혁신 추진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관행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불합리한 법령·자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 기자

## 공장등록, 자금지원, 인덕원역 일대 개발 등의 분야 기업인 공감증 해소

## 안양시, 올해 들어 기업애로 150여건 처리

기업지원 못지않게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수렴하는 것도 소홀할 수 없는 분야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줌으로써 마음 편히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올해 들어 2개월여 동안 150여건의 기업SOS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업SOS는 인터넷과 전화, 현지출장 등의 과정에서 수렴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51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중 공장등록과 관련한 건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절반 이상인 70%를 해소했다.

주로 지역에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묻는 건들이다. 돈줄이 막혀 경영에 어려움이 있

는데 어떻게 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40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전했다.

또 제품 판로와 수출,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기업SOS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감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이 침체돼 있다며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기업SOS팀'을 중심으로 매년 8백 ~ 9백 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천억원의 중기유성자금을 확보, 저금리 대출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업환경 개선 보편을 주게 되며 청년창업펀드 조성 과 청년창업 100개 기업육성 등에도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달 4일에는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 역점사업인 박달사마트밸리 조성,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범계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등의 추진상황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종균 기자



## "남북 도시간 교류활성화 위해 힘쓰겠습니다"

백운기 용인시장이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남북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시군구 차원의 정책발굴과 교류를 위해 창립됐다.

지난 16일 열린 창립총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혼용방식으로 개최됐으며 포럼에 가입한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서호 통일부 차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규약 체결, 임원진 선인, 통일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한 백운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국내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수 기자

## 성남시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 3곳 설치

긴급 생계 위기 500가구에 월 한차례 먹거리, 생필품 제공

성남시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아 가도록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을 3곳에 설치해 오는 3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설치한 곳은 수정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중원구 상대원2동 제1복지회관,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내다.

이들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엔 '성남 열린 푸드마켓'이 배분한 각계각층의 후원 물품과 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비치한다.

꾸러미는 쌀, 양념류, 농산물, 생활용품 등 5종으로 구성된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긴급 생계 위기 500가구에 월 한차례 대상자가 미리 선택한 꾸러미

구성품을 무료로 나눠준다.

대상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가 불편한 이들에겐 방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3곳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에 후원 물품을 배분하는 성남 열린 푸드마켓은 탄천종합운동장 지하 2층에 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1998년 IMF 때 사단법인으로 문을 열어 기업이나 개인이 기탁한 식품, 후원금, 성남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성욱 기자



##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19~25일 온라인 시민공청회

성남시는 3월 19일~25일 '스마트도시 계획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

시가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에 담긴 주요 사업과 기대효과 등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절차다. 스마트도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같은 첨단 인프라와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 안전·복지, 환경, 경제·문화, 행정, 기반시설 등 6개 분야의 28개 추진 과제를 스마트도시계획에 담았다. 추진 과제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수요 응답형 서브버스, 자전거도로 LED 차선, 비탈면 제설 서비스, 독거노인 스마트 케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지역 상권 방문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플랫폼, AI 민원안내 서비스, 디지털 트윈 행정,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스마트도시계획의 큰 틀 안에서 시행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자율항행 드론 등 3개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도시계획을 보완한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이성욱 기자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상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점검 및 컨설팅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 경북교육청, 2021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추진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습실, 환경, 교통, 기타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0개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유·초·중·고 중 15개교로 대상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물 내·외부, 배수로 등 건축물 안전 점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용수 설비 정상작동 여부 수배설비, 부하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 각 전기설비의 관리방법 설명과 정상작동 여부 가스사용시설의 보관·설치 기준 설명, 자동 차단장치 등 안전설비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위험물질약품 관리, 실험실습 중 안전장비 착용 여부, 폐시약 처리 관리 등 확인 안전표지판, 보호

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확인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수선비 총 1억5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부족한 재원 중 중규모이상 소요 예산은 해당 교육지원청 및 분청 해당과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학교현장의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교육의 희망 사다리'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학생 34명에게 장학금 1억3400만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21학년도 꿈사다리 장학금' 34명에게 장학금 1억3400만원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중·고등학생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을 대상 학생으로 선발해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꿈사다리 장학학생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추천하면 도 교육청에서 추천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2018년 1기 장학생 17명, 2019년 2기 장학생 17명을 선발했다.

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도서 및 교재 구입, 진로 탐색활동, 강의 수강 등 학생의 학업 및 미래 설계에 사용한다.

임중식 교육감은 "이번 장학금 지급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가꾸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상주시, 종합발전계획 비대면 주민 설명회 개최

###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종합계획의 적시성 확보

상주시가 지난 17일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 비대면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31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설명회는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상주시의 미래 비전 제시와 구체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것이다.

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상주시 홈페이지 시청소식에 종합발전계획 자료와 의견서 서식을 함께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개발, 농림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상주시는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현황 및 여건 분석, 주민 설문조사, 지역 주민·시의회·공직자·이해관계자의 인터뷰, 상주시민참여단과 상주발전연구단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

종합발전계획은 비대면 주민 설명회에 이어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면 완성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주민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영남예술합창단과 함께하는 미스&미스터트롯

'2021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 AWAF'의 열여섯 번째 공연 '영남예술합창단과 함께하는 미스&미스터트롯'이 오는 3월 23일 오후 7시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2021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영남예술합창단은 영남예술아카데미 합창 과정을 수료한 일반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봉사 활동 등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양한 트롯 음악을 여성

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하게 구성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창 공연으로 마련됐다.

김세기기자



## 예천군 & 예천권 병원,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목표로 민관이 함께 협력

예천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권규호 예천권병원원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을·면 공공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예천권병원은 퇴원 예정 입원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의뢰하고 군은 환자가 퇴원하면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력 강화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퇴원 후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 함께 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규호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환자들이 퇴원 이후에도 보건복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安心이 된다"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 도움으로 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군민들을 위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민관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포항시 건축과, '내 건물 내가 정비하기 운동'추진

포항시는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시의 외관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내 건물 내가 정비하기 운동'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 스스로가 건축물 외부 도색, 수선 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 상승과 수명을 연장을 도모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도심지 내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며 우수 지역 및 마을에는 벽화사업 지원 등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국 건축과장은 "소중한 재산의 하나인 건축물의 환경을 스스로 정비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드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된다.

### 2023년까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계적 선임

경상북도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기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

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기계설비기능점검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해 등급을 부여받은 후 경상북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이상과 장비 21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기대되며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경북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 대구시, 2021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역기업 참여 적극 지원

### 데이터·AI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와 가공비용 지원

대구시는 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해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공급기업을 연결해 주고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핵심 추진사업으로 올해는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등 총 2,580건에 1,23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데이터 구매의 경우 4

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데이터 가공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료를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데이터바우처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 신청됐던 지원사업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급기업과 지역 수요기업 간 만남을 우선하는 지역설명회를 3월 18일에 시청 별관 대강당 개최하고 온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기업별 우수 혁신사례 공유 및 데이터 활용 기업 시상 등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

구는 혁신성장 거버넌스 8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해 혁신서비스 개발과 지역 산업경제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명계3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 방문

### 주낙영 시장, 내남면 주요사업 점검하며 생생한 현장소통의 행보 이어가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과 주요 시정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 있다.

16일 주 시장은 내남면을 찾아 '명계3일반산업단지 조성',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노곡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내남면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내남면 현장방문에는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을 비롯해 이장과 지역의 기관단체장 등 주민 대표가 일부 참석했다.

'명계3일반산업단지'는 내남면 명계리 산248번지 일원에 국비 140억원과 민간자본 1,421억원이 투입되어 822,581㎡의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계3일반산단이 조성되면 18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1900여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집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남면 상산리 일원에는 '경주형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 231억원을 들여 21만 958㎡의 부지에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원예작물시범포, 아열대농업관 등 과학영농시험포 운영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현재 부지매입 진척률은 86.5%



수준이며 상반기 중 부지 매입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시장은 "명계3일반산업단지 와 신농업 혁신타운의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히며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식기자



# 경남에도 봄이 오나 봄 비대면 안심 관광지 16선 소개

## 봄철 비대면 야외 관광지 소개.개별·소규모 단위, 거리두기 실천 관광지

경상남도는 봄을 맞이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내 비대면 안심 관광지 16선을 추천·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안전여행을 위한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피로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개별·소규모·가족단위 방문 관광지를 위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열리는 봄을 주제로 다른 관광객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봄꽃들과 함께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야외 관광지 16곳을 선정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가볼 수 있는 경남 봄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만나러 가보자.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유수지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환경공원으로 습지 보전지역에 꽃동산을 조성해 놓았으며 체험공간 이 마련되어 있어 환경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숲 해설사를 통해 숲생태계 체험 학습도 가능하다.

육지도 생태·휴양의 섬 육지도의 명물인 모노레일에 몸을 실으면 아름답고 활기찬 육지마을의 전경과 연화도·우도·국도 등 탄성을 자아내는 한려수도의 보석같은 섬들, 그리고 청정한 해안경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육지도 주민들이 예부터 이용해온 벼랑길을 다듬어 950여m의 아찔한 해안산책로에 설치된 출렁다리도 꼭 한번 건너보자. 용두공원 와룡저수지 옆에 조성된 용두공원에 가면 툄립이 있는 풍차공원이 있어 이국적

인 느낌을 준다.

총 면적 5만4천㎡의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토끼와 다람쥐도 종종 만날 수 있다.

특히 공원 내에 조성된 편백숲에는 팽상, 해떡, 의자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며 삼림욕하기 좋은 야외 관광지다.

김해 낙동강레일파크·와인동굴 낙동강 봄바람을 맞으며 레일바이크를 타고 왕복 3km의 철교를 달리면 겨울내내 목혀뒀던 코로나로 쌓인 피로감을 날려버릴 수 있다.

와인동굴에서 판매 중인 김해 특산물 '산딸기 와인'을 맛보며 낙동강 노을을 감상하는 것도 낭만적이다.

거리두기·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레일바이크 탑승 전후 철저한 소독을 하고있는 안심 여행지이다.

영남루 수변공원길 봄이면 밀양강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리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강변둔치의 유채꽃, 장미꽃, 길가의 조팝꽃, 개나리 등 봄꽃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약 6km, 2시간이 소요되는 산책 코스로 관광객간 접촉이 많지 않은 비대면 걷기 코스다.

도장포마을 동백터널 숲 바람의 언덕이 있는 곳으로 옛 마을안길에는 동백나무숲이 빼곡히 조성되어 있다.

동백나무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일방향 통행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비대면 안심관광이 가능한 공간이다.

원동역 원동역부터 경부선 철길

을 따라 빼곡하게 열린 꽃길이 낭만적인 한적한 봄철 여행지다.

봄이면 분홍빛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원동마을에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벽화들을 벗삼아 나들이를 즐겨보자.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에 따스함과 위안이 되어준다.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잘 정비된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서 한우산에 오르면 아름다운 벚꽃길이 병풍이 되어 길을 안내한다.

정상에 위치한 도깨비 숲에서 도깨비를 만나보자. 강나루 생태공원 4월 중순이 되면 42만㎡의 면적에 청보리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늦봄이 되어 청보리가 익으면 황금색 들판으로 변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넓은 면적 덕에 방문객 간 밀접도가 낮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산토끼 노래동산 동요 '산토끼'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산토끼 동요관, 토끼먹이 체험장, 레일철매장, 작은 동물원 등이 있어 가족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안심관광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및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고 관광객간 접촉차단과 혼잡도 개선을 위해 일방향 관람을 실시한다. 또 곳곳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조성되어 좋은 학습장소로 인기가 많고 고성 앞바다와 어우러지는 천혜의 절경으로 관광객에게 청량감을 주는 자연명소다.



공원 내에 위치한 공룡박물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룡화석과 공룡발자국 화석을 만날 수 있다.

정금차밭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사계절 푸른 싱그러운이 가득한 정금차밭은 비대면 관광지 및 누리소통망 사진촬영 구역 명소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차나무들이 재배되고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이다.

남사예담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예담촌에는 집집마다 정성들여 쌓은 흙담이 있다.

흙담 사이 골목길로 걷노라면 100년이 넘는 담쟁이넝쿨이 흙담 가득 드리워진 모습에 운치가 절로 묻어난다.

봄이 되면 고가의 딸마다 매화나무가 겨울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 은은한 향기로 고택을 채운다.

황매산 4월 말이 되면 산 전체가 철쭉꽃으로 물든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빗마루 산책길도 따로 조성되어 있으며 능선을 따라 걸어가는데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진분홍빛 꽃의 파도가 눈을 즐겁게 한다.

야간에는 별과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합천호와 백리벚꽃길 합천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벚꽃나무의 행렬은 눈을 땔 수 없이 빛난다.

차량에 승차한 채 훑날리는 벚꽃 내용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인적 드문 곳에서 잠깐 내려 신선한 봄공기를 한껏 마실 수 있는 안심관광지다.

서충동류 물길 트레킹길 산수교에서 출발해 자연휴양림, 월성숲, 월성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보여행

길로 산자락에서 이어지는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과 아름다운 천연림이 나만의 치유공간을 제공한다.

시원한 계곡물과 함께 숲과 계곡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걸을 수 있다.

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16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누리집 공지사항과 경남도 관광 누리소통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껏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에 온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봄을 맞아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자연속에서 힐링하며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날려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산청군 수출용 들깨잎 일본 판로 개척

산청군이 양액재배와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재배한 들깨잎 84kg을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K-Food 봄을 타고 일본 현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도매가는 2kg 한상자에 5500엔으로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들깨잎을 신소득 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 무기양토 활용, 양액재배 및 스마트팜 시

스템을 도입했다.

또 상품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수출컨설팅팀과 함께 수출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산청에서 재배한 들깨잎은 일반적인 들깨잎에 비해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 향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군은 판매단가가 밀양, 금산

등 주산지에 비해 저렴했으나 이번 수출을 계기로 10~20%의 판매단가도 인상돼 재배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했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는 "들깨잎이 일본 수출기준에 따라 철저한 재배 및 농약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배농가를 확대해 산청의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창원시, 청소년 봉사단 '제5기 토바기' 모집

창원시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창원시 청소년 봉사단 제5기 토바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봉사단원 120명, 대학생 멘토 20명으로 총 140명을 모집한다.

기간은 청소년봉사단원 22일부터 26일까지, 대학생 멘토는 22일

부터 4월 9일까지이다.

토바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란 뜻이며 사회문제인식 캠페인, 지역축제 행사지원, 농촌 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활동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 및 자원봉사

리더로 육성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것이며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안익태 사회복지과장은 "청소년들이 많은 봉사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 비화산지대에서 2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 수리봉 위원량의 '망곡서望哭書' 암각문,해발 420m 고지 현장에서 고증 결과를 공개하다

해동암각문연구회와 장흥문화원이 2020년 11월부터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암각문 조사 가운데, 전남 장흥군 수리봉 위원량의 '망곡서' 암각문은 크게 주목받은 성과물이다.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시비의 논쟁도 있었다.

본 조사단이 처음으로 공개한 영상과 사진임에도 판독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은 지난 3월 13일 현장에서 '망곡서' 탁본을 공개적으로 실시했으며 문헌고증의 결과도 공개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한시준 관장의 전화 인터뷰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조사단 외에 회은 위원량 선생의 증손자 3인과 장흥향토사연구가, 장흥위씨종인, 언론기자 등 10여명이 참여했으며 간략하게 고유제를 올린 다음 탁본을 실시했다.

회은 위원량의 칠연절구를 새긴 암각문은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내동과 구룡리 자미마을 뒷산 정상인 수리봉 암벽에 북향으로 새겨져 있다.

바위 면에 광곽을 얇게 파고 평탄하게 조성한 다음에 해서체 종서로 쓴 칠연절구 '登臨是日感斯峰'은 東邦守 義峰 人多不守 峰能守 可以人 兮不似峯' 28자를 음각했다.

그리고 좌측에 '隆熙庚戌秋' 魏元良謹拜' 望哭書'라는 관지를 종서로

음각했다.

판곽의 규모는 가로 85cm, 세로 50cm이다.

글씨 하나의 크기는 대략 가로 8.5cm×세로 9.5cm 정도이다.

관지의 내용은 "윙희 경술년 가을에 위원량이 삼가 절하고 곡하며 쓰다"이다.

윙희 경술년은 한일합병이 체결된 1910년이다.

조사단장 홍순석 교수가 공개한 '망곡서' 관련 문헌기록은 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 장흥지속록長興誌續錄, 장흥지長興誌 3건인데, 문헌에는 '斯'자가 '於'로 '多'자가 '之', '而'로 기록되어 있다.

장흥의 유학자 위원량이 경술국치의 사실을 듣고 울분을 토로하고자 수리봉 정상에 올라와 칠연절구를 짓고 암각문을 조성한 것이다.

칠연절구를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登臨是日感斯峰 - 오늘 올라와 이 봉우리에서 느끼나니

義峰 - 이 봉우리야말로 동방의 의를 지킨 봉우리네

人多不守峰能守 - 사람 많아도 못 지킨 것을 봉우리는 지키니

可以人兮不似峯 - 사람이 이 봉우리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네

조선환여승람에는 회은 위원량의 '송암정松巖亭' 시도 수록되어 있는데, '망곡서'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이다.

地煙霞築一樓 - 안개 노을 빈터에 누정 하나를 지으니

洞門深鎖遠漁洲 - 마을 입구는 굳게 닫혀서



물가에서 멀고有期月滿青山面 - 달이 푸른 산에 깎 차기만 기다리는 데

不種花開老石頭 - 심지 않은 꽃이 오랜 돌 머리에 피었네何必苟求名利得

어찌 꼭 구차히 명예와 이득을 구할꼬莫如安分讀書留 - 분수 지켜 독서하며 머무는 것만 못하리

於今仰數先天事 - 지금 우러러 지난 일들을 헤아리니 恨未勤王庚戌秋

경술년 가을에 근왕하지 못함이 한스럽네

송암정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경술년 가을에 근왕하지 못함이 한스럽네"라 한 것은 바로 '망곡서' 암각문이 조성된 경술년 당시를 회상해서 말한 것이다.

이날 2차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가운데 '망곡서' 암각문이 정북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깊다.

수리봉의 여러 바위 면에서 고증 황제가 있는 북향의 바위 면을 택해 암각문을 조성한 것이다.

그만큼 '망곡서' 암각문은 회은 위원량 선생의 결연한 우국충정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공개한 홍순석 조사단장의 자료와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수리봉 '망곡서' 암각문은 다음과 같은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필서자 회은 위원량은 문림의향 장흥의 지역 콘텐츠에 부합하는 근

대시기의 장흥의 문사이자 의리를 실천한 학자임을 암각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대시기 중 1905년 을미사변과 1910년 한일합병은 전국 유림의 의병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장흥 지역의 문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 연재 송병선이 1905년에 자결하고 1910년 매천 황현이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29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 위원량이 수리봉에 통한을 참아내며 암각문을 조성했을 정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단지 지면에 남긴 시문과는 격이 다르다.

"경술년 가을에 위원량이 삼가 절하고 곡하며 쓴다"는 관지까지 바위에 새긴 것은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조정의 관료들이 사직하거나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며 지은 망배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경술년 전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분개하고 지사들은 순절하며 절명시를 남겼던 시기에 이처럼 완벽한 암각문으로 당시의 정황을 토로한 자료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근대시기 호남 지역의 항일의병 활동 관련 사료로서도 주목될 것이다.

문헌과 증언 자료 외에 '망곡서'와 같은 암각문을 통해서 현장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는 의미가 깊다.

회은 위원량의 '망곡서' 암각문은 암각문의 구성 요소인 본문과 관지, 판곽까지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석학 분야에서의 가치도 높다.

회은 위원량의 '망곡서' 관련 언론 방송보도가 되면서 후손으로부터 회은의 초상, 고택, 묘역 관련 사진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장흥위씨 문중의 사적과 연관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회은 선생 관련 자료는 향후 방촌유물전시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김장길기자

# 인공지능·탄소중립 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

## 인공지능·탄소중립 시민체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손잡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대와 탄소중립도시를 시민의 생활 속으로 실현한다.

광주시는 1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융합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사업과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미래 전략사업의 양대 축으로 '인공지능'과 '탄소중립'을 역점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착공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유치에 이어 광주공동체 탄소중립 추진체계 출범까지 많은 성과를 뒀음에도 아직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와 5개 자치구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시민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보건소 운영' 등 6개 공동사업에 힘을 모은다.

제1호 사업인 인공지능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별의원 2200여개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X-ray 장비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해 온라인 협진이 가능도록 정확도를 높이고 판독시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갖춘 '인공지능' 의료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실증센터'와 개인 의료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시민의료앱'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 특성에 맞게 선정된 25개 특화사업도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의료 인프라 및 AI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분야에서 4개 사업, 서구, 시민친화 에너지파크 조성 및 수소연료전지 분야 특화 4개 사업, 남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고령친화 의료분야 특화 4개 사업, 북구,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 5개 사업,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 분야 특화 8개 사업 등이

다. 특히 시는 올해 모든 영역에 걸친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민들이 빠르게 적응하며 거부감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사용한다'는 시민주도 에너지 실천운동을 통해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 앞선 2045탄소중립도시 목표 달성에 나가는 데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치구는 시민과 가장 가까워서 의료,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

굴하고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며 시와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며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 열었다

## 오는 11월까지 입교생들 기초영농교육과 실습 진행

무주군이 18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을 열고 본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시민이 무주에 귀농·귀촌을 위한 첫 걸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이 늘어나면서 16세대가 신청해 최종 10세대가 선발됐다.

교육생은 11월까지 초보 농업인으로서의 기초영농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위한 토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토지법률, 주택 리모델링 노하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에 소재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동과 개인텃밭, 공동경작지, 시설향우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주로의 귀농을 유도하고 영농성공률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매년 입교생들과 공동경작지, 시설향우에서 재배한 배추, 무, 표고버섯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따뜻한 무주 만들기 동참하고 있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



로 제공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재배 실습과 귀농·귀촌 정착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주택 50㎡, 텃밭 33㎡ 내외 규모가 보증금 60만원에 월 25만원이며 주택 33㎡, 텃밭 33㎡ 규모는 보증금 40만원에 월 20만원이다.

세대별 공공금은 개별 부담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수료한 교육생은 31세대로 14세대가 무주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분들이 체제형에 지원해 주셨다"며 "많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교육생 모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 장성군, 120ha 규모 조림사업 추진 “옐로우시티답다~”

장성군이 총 120ha, 약 3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2021년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대표하는 산수유 나무 250여 그루를 조양천과 북하천에 식재해 황룡강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편백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구성된 '경제수'를 106ha 규모로 조림한다.

목재펠릿, 펄프재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오순환조림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10ha에 편백나무 1만 5천 그루를 식재해 산사태, 산불, 태풍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군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녹색 환경을 제공을 위해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의 획일적인 조림에서 벗어나,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통해 숲의 다양한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 군산시, 영농부산물 퇴비화로 미세먼지 줄여요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곤충에도 피해를 주 손해가 크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남은 영농부산물의 관행적 소각으로 인한 화재예방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경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토양 유기물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잘게 부순

뒤 퇴비로 재활용하면 농업환경이 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보유한 잔가지파쇄기는 3종 5대이며 지원대상은 군산에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으면 된다.

또한 이장 등 마을대표가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량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제도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 김영록 지사, “무안, 공항 중심 국제 관광거점 육성”

### 17일 무안서 도민과의 대화...시 승격·의대 유치 등 현안 지원키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무안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경우 호남고속철도를 2023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명을 유치해 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 도청소재지를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일부에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도청 소재지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일 뿐”이라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여건이 성숙한 뒤에야 논 의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은 조광역 협력사업 등 경제공동체 구축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시·도지사 협약에 관련 사항이 명기된 만큼, 도청 소재지 이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무안군에서 열망하는 시 승격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산 마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수급이 불안한 농산물에 대해 검역 강화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비 889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목포대학교가 소재한 무안에 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주민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협의체의 의과대 신설 논의가 중

단된 상태”며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도민의 30년 염원인 의과대가 전남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충분한 지역발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제시는 무안군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 김대현 무안군의회의장, 무안 출신 나광국·이해자 도의원, 주민 대표, 기관·단체장, 일반 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주민 150명이 영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김연안 기자



## 상가 이주단지,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한옥숙소 등 조성 광주 생태문화마을 첫 삽 떴다

무등산 생태환경 복원과 광주관광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마침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 17일 오후 광주호 수생태원 인근 부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신수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구의원, 문인 북구청장, 체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과 허민 무등산난개발방지민관협의회의 상임이사 등 무등산 단체,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엄격히 이행하며 진행된 이날 착공식은 개식선언 및 국민이례, 사업경과 설명, 단지조성계획 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4만 3631㎡의 부지에 원효사 상가이주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퓨전 한옥숙소 힐링촌 기

존 지형의 다랭이 논을 형상화한 경관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생태문화마을이 완공되면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에 광주의 문화 예술을 입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머물며 건강과 활기를 되찾고 광주의 멋과 맛을 느끼고 돌아가는 대표적인 명소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등산 생태탐방원과 함께 주변 자연생태와 관광지구가 어우러지면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2년 들어선 원효사 노후상가 철거 및 이전으로 40년 만에 무등산 심층부 훼손구간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등 무등산 생태환경 복원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생태문화마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국립공원 내 상가를 외곽으로 옮기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아트도시 광주정책’의 제1호 사업인 생태문화마을은 기존 건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며 이를 계기로 광주경관의 새로운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광주생태문화마을이 광주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광주의 대표마을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중효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덕윤 기자



## 영암군, 건강과 환경 위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 전력

영암군은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240ha 증가된 3,922ha중 유기농 64%, 무농약 36% 인증면적을 획득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생산 기틀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생명산업 육성과 소비 수요증진의 품목 다양화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구축을 위한 대책 모색과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억여원을 투자해 영암군 통합 RPC와 계약, 달마지쌀 골드 유기농 벼 생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농협 권장품종 수매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영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 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해 영암쌀 산업 발전 연구 용역을 발주해 급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영암쌀의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등의 전반적인 쌀산업구조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의 건강·환경보전을 생각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단지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벼농사 육묘용 상토, 유기질 비료 지원, 볏짚되돌려주기 등 134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아울러 농식품부 및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개소,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1개소,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 1개소를 통해 친환경 고구마, 무화과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 보험 사업을 위해 4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와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사업량을 확보해 영농안전사용장비 2,172조, 농기계 등화장치 409조를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농기계 지원 750여대, 농업용 드론 등 농산물생산비 절감 농기계 35대 등 소규모 농가 작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농기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량물고, 농축산물 텃밭 운반장

비 사업 지원을 통해 관내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존 직불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확대 개편된 공익직불제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450억여원을 지원해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되어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350여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농공식품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할 예정이다.

이남출 기자



## 사용이 편리한

#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339-8822

# 증평군,새봄맞이꽃길 조성

증평군이 지역명소인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봄꽃 식재작업을 마쳤다. 군은 보강천에 다채롭고 풍성한 꽃밭과 길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꽃모장에서 팬지, 비올라 등 봄꽃 10종 13만 본을 재배했다.

꽃모장에서 자란 꽃들을 미루나무 숲 일대에 식재해 4월이면 활짝 핀 꽃을 보며 만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변, 청사주변 등에도 봄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다.

군은 지난해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만남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계단식



침터를 조성했다.

소형흔들다리, 그네의자, 포토존 등 계단식 침터가 봄꽃과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여름에는 안젤로니아, 맨드라미, 토레니아, 전일홍 등 14만 본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다양한 국화꽃을 전시하는 등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겨우내 삭막했던 도심지 곳곳에 식재되어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생기 있는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문화콘텐츠 창업자 'D-린스타트업'으로 모여라

### 대전시'D-린스타트업'신규사업추진,예비창업자의 성공가능성높여

대전시는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D-린스타트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D-린스타트업'은 문화콘텐츠 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화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해 우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린-스타트업'이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한 뒤, 고객의 반응을 적용해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창업전략을 말한다.

대전시는 5월부터 신청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우수 수료팀 4팀에게 최대 500만원의 사업모델 검증비를 지급한다.

또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에게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내 창업공간을 제공해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노기수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사업은 대전의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사업화 지원을 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 창업자들에게는 입주 공간 제공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예산군에서 '두릅'으로 제2의 삶 시작하다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김경수·박단오 부부 사연 소개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큰 흉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하우스 두릅재배로 제2의 삶을 시작한 귀농부부 김경수·박단오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부부는 지난 2014년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했으나, 아내 박단오씨가 암 수술을 하고 회복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를 떠나 귀농 지역을 알아보게 됐다.

그러던 중 예산군을 방문하게 됐으며 광활한 안개와 구름이 대지를 뒤덮었다가 걷히면서 바다처럼 보이는 예담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

특히 부부는 암 수술 이후 귀농을 했기 때문에 몸에 좋은 나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자연스럽게 두릅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따뜻한 봄철 나른하고 입맛이 없을 때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입맛이 되살아난다는 팥두릅나물은 4월 하순에 열리며 나무에서 열리는 참두릅은 5월 초순에 열리지만 김경

수, 박단오 씨 부부는 하우스 재배를 통해 두릅의 생육시기를 조절하면서 재배를 하고 있다.

부부는 두릅을 산에서 잘라와 물과 습도를 맞춰 20~30일 숙성 재배를 하면 하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으며 출하 시기는 12월에서 5월까지로 현재는 서울 가락동시장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거래와 택배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 이라고 전했다.

김경수·박단오 부부는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예산에 귀농하고 두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이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흉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예산에 정착하고 있는 부부와 같은 귀농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원주시-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 태장동 신혼부부매입대주택단지내 74.9㎡ 규모



원주시와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는 지난 16일 원주시청에서 태장동 신혼부부매입대주택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 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해 서로의 양육정보를 공유·학습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에 따른 공간 무상사용 시설 이동활동 프로그램 홍보·교육 협력 가족돌봄 기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는 태장동 신혼부부매입대주택단지 내 74.9㎡ 공간에 기자재 구

입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및 놀이 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지원하고 원주시는 1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현재 원주시는 판부면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반곡동 푸른숲LH10단지 커뮤니티센터 2곳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태장동 3호점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필여 시민복지지사는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동체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삼척시, 올해 관내 읍·면 빈집실태조사 추진

삼척시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지난해 동지역 빈집실태조사에 이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까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실시한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빈집 추정자료 1,200 여동을 1차로 선별했으며 이를 근거로 빈집 여부 확인, 빈집 관리현황 및 방지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의사 등을 현장조사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주요 구조부상태와 위태성 등에 따라 등급상정

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추진 방안 및 시행방법, 매입 및 활용 방법 등을 강구해 2022년 삼척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동지역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재 상태 또는 가벼운 수선을 통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빈집 52동, 약간의 수선을 통해 사용 가능한 빈집 78동, 거주환경이 불량해 대수선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빈집 19동, 건물의 구조 및 외관이 현격하게 불량해 철거 대상 빈집 71동 등 220동이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정라동 78동, 남양동 66동, 교동 41동, 성내동 35동이 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이 단순 철거지원 영역에서 벗어나 빈집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 오룡경기장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 선정

###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해 원성동, 신부동 일대지역경제 활성화기대

천안시 원성동 오룡경기장 부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오룡지구 일대 원성동과 신부동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오룡경기장 부지에 도시재생리츠 공모를 신청한 시는 국토부로부터 지난 17일 최종 선정을 통보받아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방식인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은 민간·지자체·주택도시보증공사 가 리츠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쇠퇴지역 내 공유지 제공 및 인허가 절차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활용, 민간에서는 기획·구상단계부터 참여해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시공을 맡아 추진한다.

오룡경기장 부지에는 중앙정부와

천안시, 민간의 협력으로 병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오룡경기장을 새로운 스포츠 명품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공모 계획 중인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투입으로 복합스포츠파크와 스포츠 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오룡경기장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 선정이 다음달 국토부에 신청할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업은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오룡경기장의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천안지역의 대표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반영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영동군, 코로나블루 날리는 봄맞이 꽃 '활짝'

### 심천면꽃육묘장에서봉우리 티운봄꽃들,지역 곳곳에서 자태 뽐내

충북 영동군 꽃 육묘장에서 겨울 한파를 이겨낸 봄꽃들이 국악과 과일 고장 영동의 거리를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심천면 약목리에 직영중인 양묘장 2,000㎡ 비닐하우스에서 지난 겨울동안 정성껏 키운 팬지, 아네모네, 석죽, 오스테스펠lem, 꽃잔디 등 7만9천본의 꽃묘종이 분얼돼 지역 곳곳에 식재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시가지 주요 회전교차로 난간걸이 화분, 공공서입구 등에 우선 분양 후 봄이 왔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팬지가 먼저 꽃을 활짝 피워, 겨울 한때 삭막했던 화단을 채우고 있다.

이 꽃 육묘장에서선 겨울엔 봄꽃을, 여름엔 가을꽃을 재배하며 계절을 앞서 준비하고 있다.

군은 꽃 육묘장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등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고 있다.

팬지 외에 다른 봄꽃들도 차례차례 꽃망울을 터트려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봄꽃 분양을 시작으로 여름꽃 8만 본, 가을꽃 41만본 등 총 57만 본의 꽃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군은 꽃 육묘장을 직영하며 계절에 따른 다양한 꽃묘 생산·공급과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왕래가 많은

도시 일대의 특색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시기, 군민들은 거리를 행형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봄꽃들을 보며 봄의 생동감을 느끼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직영 꽃 육묘장에서 생산한 꽃들과 여우러진, 특색있는 국악과 과일의 고장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봄꽃뿐만 아니라 연중 아름다운 꽃이 거리를 화사하게 가득 메울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성껏 키운 꽃을 보고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마음도 보다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중랑구청 직원, 16년간 '사랑의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 17일 중랑구청사 앞에서 31번째 '사랑의 헌혈' 진행

"저는 이번이 32번째 헌혈이다" 17일 오후 2시 중랑구청사 앞 헌혈 버스에서 만난 중랑구청 직원 이 모 주무관이 웃으며 말했다.

이 주무관은 구청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매년 헌혈에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17일 중랑구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2005년 9월 첫 시작 이후 매년 이어져 이번이 31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랑의 헌혈에 참여한 중랑구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연인원 2,253명에 달한다.

오랜 기간 동안 헌혈 행사가 진행된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헌혈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사랑의 헌혈을 진행할 때마다 중랑구청 노동조합에서는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조그만 이벤트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해 참여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트폰을 지급하고 헌혈증을 기탁한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렇게 기탁된 헌혈증은 불우이웃을 위한 헌혈증 기부사업에 사용된다.

지난 2017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약정식을 맺고 매년 3회 사랑의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꾸준한 헌혈봉사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도 수여받았다.

구는 주민들에게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2016년에는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를 제정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 이강섭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장 임명

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장에 이강섭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식은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자율방재단 자체 호선에 따라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선출된 이강섭 단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취임 축하하기 위해 신동현 시장, 이강섭 신임 단장 및 이민호 신임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 신임 단장은 "제6대 광주시 자

율방재단 단장으로 임명해 주신 시장님과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 방재능력을 키워 일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및 현장 응급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시장은 "그간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강섭 신임 단장의 취임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수 기자



# 이종수씨, 문화관광해설사 시나리오 경진대회 금상

## 하동군, 경남도 대회 '토지, 소설 속의 한옥 이야기' 발표...오세희씨는 동상

하동군은 이종수 하동군문화관광해설사가 최근 열린 경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시나리오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수 해설사는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46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토지, 소설 속의 한옥 이야기'를 주제로 소설 속의 인물과 우리 한옥에 담긴 조상의 지혜를 맛깔난 이야기로 풀어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수 해설사는 공무원 퇴임 후 2016년부터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며 알프스 하동의 관광명소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오세희 해설사도 '화개동 연가'를 주제로 발표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남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해대학평생교육원 주관으로 매년 개



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다.

한편 총 15명으로 구성된 하동군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하동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해설·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하동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광용 기자

# 계룡시, 한국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장에 공모패 수여

계룡시는 지난 17일부로 임하는 한국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 이경준 회장에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모패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경준 회장은 4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계룡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주말농장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등 계룡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후임으로는 안영상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김원호 기자



# 양촌읍주민자치회 자치계획단 발대식 개최



양촌읍주민자치회는 지난 16일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주도 자치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계획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치계획단'은 양촌읍의 특색과 자원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 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5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에 참여해 자치계획단 위촉과 주민자치와 자치계획단의 역할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

향후 자치계획단은 기본교육과 워크숍 등을 거쳐 소양을 기르고 마을자원 및 현안 조사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정책공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계획으로 최종 선정·확정 시 2022년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명화 주민자치회장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자치계획단과 적극적으로 마을의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으며이기일 양촌읍장은 "2021년 자치계획 수립에 첫 발걸음이 된 자치계획단 발대식을 계기로 양촌읍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동희 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 8명 위촉



양평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17일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해당사업은 23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군에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 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동균 양평군수가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민간 대표 공동추진위원장은 양승기 웰팜 대표가 선출됐다. 또한, 사업보고회는 공동위원장인 이계환 부군수 주재로 개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승기 공동추진위원장은 "위원회는 정식 출범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소득향상 및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활력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정책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이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농촌사회가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을 기자

### 청주시-충북TP,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체결

바이오기업 해외 수출 지원 위한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 추진



청주시와 충북테크노파크가 18일 시청 직지실에서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송재빈 충북TP 원장, 안성현 청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와 충북TP는 이날 협약을 맺고 청주시 소재 바이오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주시의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유망기업의 육성과 언택트와 온택트 방식의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해외 수출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주시 소재 제약·바이오 유망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온라인 B2B 플랫폼에서 제품홍보와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용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해외시장조사, 마케팅지원 등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 예산 7억원을 들여 충북TP가 사업을 수행하고 이달 말 바이오 유망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비대면 정국을 타파하고 바이오 분야 수출계약 20건, 수출액 1000만 달러 달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진안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원활한 추진

윤일암반일암 관광상품제작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기여

진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주민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달 17일 시작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다. 올해 진안군은 주천면에서 문화관광자원인 윤일암반일암 캠핑장을 활용한 관광상품 제작 일자리를 제공해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귀농귀촌한 청년 여성층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A씨는 "단순히 취미로만 했던 손바느질이 일자리로 연계되어 너무 신기하다"며 "여기서 만들어진 물품이 진안에 온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생각에 너무 설렌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관광상품 제작 뿐 아니라 지역일자리까지 이



여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철이희철 기자

### 청양군 '할인해봄' 칠갑마루 쇼핑몰 기획전 인기

청양군이 지난 15일부터 공식 쇼핑몰 칠갑마루를 통해 선보인 '할인해봄'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획전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주요 판매 품목은 대표적 봄의 전령사 프리지어를 비롯해 모녀의 정성으로 빚은 '하나농' 전통고추장과 된장, 고춧가루, 방울토마토, 환절기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구기자, 맥문동 등이다. 이번 기획전은 일반적인 가격 할인과 함께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쿠폰을 발급받는 방법은 네이버 로그인 후 칠갑마루를 검색해 쇼핑몰에 접속하면, 쇼핑몰 로고 왼쪽에 '찜하기'가 나타난다. 이 찜하기를 클릭하면 소식받기 배너가 생성되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최대 3000원 할인 쿠폰이 발급되면서 기존 할인과 추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쿠폰 할인 이벤트는 5월말까지 계속된다. 모든 상품은 포털사이트 칠갑마루 검색이나 카카오톡 칠갑마루 채널에서 친구추가 선택 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부한 영양소를 듬



뽕 머금고 있는 청정 농특산물과 향긋한 프리지어를 안방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칠갑마루 쇼핑몰을 통해 봄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며 고정화기자

### 진주형 배달앱 서비스 드디어 "시민 결의로"

시범 후 이달 말 정식운영. 진주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시스템 탑재

진주시는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평동'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진주형 배달앱 운영 사업은 일반 상용 배달앱 이용 시 6~12%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획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스마트로 (㈜아라솔루션, ㈜히니비즈 등 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는 자체 배달앱 구축, 진주사랑 상품권 결제 수단 탑재 등을 완료한 '배달의 진주'와 '평동'에 대해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진주시는 지난 1월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서 배달의 진주 500곳, 평동 400곳 등 약 900개 업체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배달앱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말경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역 가맹점들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400여 개 업체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가입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형 배달앱은 직접 개발 운영하는 방식에 비해 앱 개발 비용, 민간대행사 위탁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발생 없이도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어 관리·운영상 전문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진주형 배달앱의 참여 민간 배달앱 플랫폼 업체는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의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하며 지역 화폐인 진주사랑상품권 결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에 100억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배달앱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형 배달앱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 민간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 기자

### 공주시, 우량기업 4곳 유치...1164억 투자 이끌어 내

남공주산단 등에 공장 신설,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약속



공주시가 우량기업 4개사를 유치하고 이에 대한 합동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9개 시장·군수와 30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바이오니아, ㈜다산에너지, ㈜유진글로벌, 동인화학 4곳으로 이들 업체는 남공주일반산단과 탄천일반산단, 정안농공단지에 생산 공장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164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으로 약 200여명의 신규 고용 인력은 지역민을 우선하고 관내 생산품 소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많은 우량기업들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대우산업개발,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19일 모델하우스 오픈

대구지역에서만 6개 단지, 약 4,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성공적 분양

대구에서 잇따라 분양성공 신화를 이뤘던 대우산업개발은 올해 3월 또다시 성공의 도전장을 내민다. 대우산업개발은 오는 19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99-51번지 외 5필지에 들어서는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지하6층~지상 45층 1개동, 전용 84㎡, 130㎡, 134㎡ 총 117세대로 구성된 다. 특히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달서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고층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450%이하, △일반상업지역 430%이하,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만 허용될 예정이다. 지상1층~지상4층까지는 복합 리저리 라이프몰 '엑소플렉스 감삼'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로써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시켜 줄 예정이다. 스트리트형과 테라스형 상가에 옥상정원까지 누릴 수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과 문화의 수준을 높여줄 전망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6개 단지를 공급했다. 2006년 진천역 이안(294가구)을 시작으로 월배 이안(400가구), 이안 경산진량(540가구), 이안 동대구(931가구), 이안 센트럴D(1179가구)까지 성공적으로 입주시켰고, '이안 센트럴D'(총 1,179세대)까지 완판시키며 동 대구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대구

동구 동인동에 분양한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총 630세대)도 조기에 100% 계약을 완료시키며,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분양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 및 외로로, 성서IC·남대구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TX가 정차하는 서대구역도 2021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교통망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에는 두류공원과 장기공원, 상리공원과 같이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아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여기에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인 이월드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여가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함께 대구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장동초를 도보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경암중, 상서중 등도 인근에 위치해 안심통학권을 갖췄다. 특화된 설계들도 눈에 띈다. 지상 45층에는 하늘과 마주한 프라이빗한 공간 탑클라우드 라운지, 지상4층에는 이안오피스와 북카페, 티하우스, 이안 액티브파크 등의 커뮤니티 공간인 클라우드 가든이 조성된다. 여기에 에어샤워, 에어브러쉬 등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첨단IOT시스템, 무인택배함부터 무인정비 등 언택트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공간에 감성과 감탄을 담는다'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설계를 선보인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우산업개발만의 차별화된 특화평면 살림착착2.0(테일리스시스템)은 84㎡, 130㎡ 타입에서 만날 수 있다. 살림 착착2.0(테일리스시스템)은 세대구성원의 동선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방 파우더룸 외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파우더룸을 구성한다. 공용욕실과 파우더 공간을 한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동선을 최소화하여 출근 또는 등교하는 세대구성원들의 동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방, 대형창고, 세탁공간, 욕실을 연결해 주부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어 각광을 받았던 기존의 '살림착착' 특화평면 역시 일부 세대에 적용된다. 2006년 탄생한 대우산업개발의 '엑소디움'(EXORDIUM)은 주거 공간과 상업공간의 완벽한 조화로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최고급 브랜드다. 최고의 입지, 차별화된 설계, 고급 마감재와 인테리어로 대한민국 주거공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프리미엄 아파트로, 이미 울산, 부산 등의 랜드마크로 꼽히며 인정받은 바 있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미 대구 시민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인 만큼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분양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다"면서 "이번에는 입주민들이 이곳에 사는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차별화와 고급화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의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61-9 (감삼역 1번 출구)에 위치한다. 입주는 오는 2025년 3월 예정이며 현재 아파트와 상가 동시분양을 진행 예정이다.

박류석대기자

